

유형별	재원별	임기구분	목표연도	사업주체	전체 추진율 (누적값)
신규	비예산	임기내	2024	수원시	100%

□ 사업목표

- 수원시정의 다양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주민참여 공청회·토론회·위원회 등에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 공청회·위원회 등 참여 강화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양성 존중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지속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 이주민
- 주요내용 : 주민참여 공청회 · 위원회 등에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 수원시 외국인주민 현황

연도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인원수	71,392	68,633	65,885	66,490	67,073	63,931

* 수원시 총 인구수 1,226,362명 대비 5.8% / 전국 시·군별 순위 : 안산시(108,033명) / 전국 4위

□ 연차별 이행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계	임기내 목표					임기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6.	
기본계획수립	회	1	계획수립					
거주 이주민 위원 수	명	7 (누적)	3	5	7	7	7	
사업추진율(누적값)	%		50	75	100	100	100	

□ 추진실적

○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계획 수립 (완료)

- 공청회 · 위원회 참여가능 수요조사 실시
- 이주민 위촉가능 위원회 : 39개 위원회(시 · 구 · 동 전체)

○ 거주 이주민 위원 수 확충(13명) (완료) ----- 2022. 9. ~ 2024. 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분과 위원(중국 1) -----	22. 9.
❖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 위원(인도 1, 일본 1) -----	22. 11.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중국 1) -----	22. 11.
❖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미얀마 1) -----	23. 2.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베트남 1) -----	23. 3.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중국 1) -----	23. 8.
❖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 위원(중국 1) -----	23. 9.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베트남 1, 우즈베키스탄 1) ---	24. 1.
❖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네팔 1) -----	24. 2.
❖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중국 1) -----	24. 4.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위원회(일본 1) -----	24. 10.

○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3. 7.

○ 이주민 상생 토론회 개최 ----- 23. 11. 9.

- 이주민, 동 주민자치회장 등 단체장, 유관기관 등 130여 명 참석

○ 이주민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4. 4. ~ 6.

- 글로벌 시민 리더 아카데미 교육(이주민 위원 4명)

○ 제16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 ----- 24. 5. 19.

- 이주민 및 수원시민 5,000여 명 참석

○ ‘찾아가는 이주민 상생 토크’ 개최(고등동) ----- 24. 6. 3.

- 이주민, 동 주민자치회, 통장 등 단체원 60여 명 참석

○ 제10회 내 · 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개최 ----- 24. 10. 12.

- 이주민 및 수원시민 300여 명 참석

○ 이주민 기관 및 시민 참여 의견수렴 ----- 연중

-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개최(4회)
-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회의 개최(다누리꾼 64명, 4회)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회의 개최(서포터즈 15명, 12회)

□ 「2024 새로운수원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 검토 의견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이주민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 이에 소통창구를 선주민도 포함하는 구조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여부 : 반영 • 검토의견 : 이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소통할 필요성 있음 •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상생 토론회 및 찾아가는 이주민 상생 토크 개최 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와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상생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현황을 보면 여성이주민 비율이 높음. 다양한 형태로 한국으로 유입된 여성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선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여부 : 반영 • 검토의견 :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음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이주민 여성 대상 교육, 모임 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활용

□ 향후추진 계획

- 위원회 이주민 위원 위촉 ----- 수시
- 이주민 참여 행사 개최
 - 제17회 다문화한가족 축제 개최 ----- 2025. 9.
 - 제11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개최 ----- 2025. 10.
- 이주민 기관 및 시민 참여 의견수렴 ----- 연중
 - 유관기관 간담회 : 출입국·외국인청,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9개 기관
 -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회의 : 16개국 64명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회의 : 7개국, 15명

□ 사업 홍보실적

이뉴스투데이 2024년 10월 13일 (일) 전국

수원특례시, '제10회 내-외국인 말하기 대회' 열어

성인 참가 '한국어 부문'과 초·중·고등학생 참여 '이중언어 부문' 진행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최윤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시청 대강당에서 12일 제10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말하기 대회는 성인이 참가하는 '한국어 부문'과 초·중·고등학생 참여하는 '이중언어 부문'으로 진행됐다.

'한국어 부문'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참가했고 '이중언어 부문'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가 참여했다.

대상은 '잊지 못할 한국에서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발표한 중국 출신 이주민 채리형(한국어 부문)씨, '아름다운 도시 수원으로 놀러 오세요'를 발표한 중국 출신 최아리(이중언어 부문)씨가 받았다.

본선 진출자 10명(부문별 5명)이 스모국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수원 소개하기 스승회에서 만난 '잊지 못할 사람 또는 추억 스한국어, 및 나의 실수' 등 주제로 발표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을 선정했다.

한국어 부문 최우수상은 '수원에서 만난 친구'를 발표한 양자이(중국)씨, 우수상은 '수원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을 발표한 응우옌티투짱(베트남)씨가 선정됐다.

이중언어 부문 최우수상은 '와 나의 실수! 놀이할 너무 어려워요'를 발표한 진진여(중국)씨, 우수상은 '수원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발표한 김서은(중국)씨가 받았다.

이날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선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시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글을 배우고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2024.10.13.)_내외국인 말하기 대회

2024년 11월 07일 (목) 사회 07면

경기신문 수원시, 다문화정책 몸집 키운다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업무 공유 시정 참여 확대 위한 협조 '맞춘'



수원시와 관내 다문화 정책 유관기관들이 이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6일 시는 지난 5일 광교푸른순도서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을 위한 주요 사업과 기관별 업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시 다문화정책과를 비롯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이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공유 내용은 2025년 대전환 사업 '언제나! 어디서나! 이주민 지원 확대',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협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사업 등 현안 사항·기관별 업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정책 유관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이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시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 기자

▶ 보도자료(2024.11.7.)_유관기관 간담회

담당부서	이주민정책과	과장 최세연(3605)	이주민정책팀장 서영미(3606)	주무관 류승현(2706)
------	--------	--------------	-------------------	---------------